

송정 전도소 개설

전라남도 송정시에서의 복음 전도는 1986년 10월 27일에 대전 선교부 홍 무광 선교부장의 지휘하에 박 중언 장로, 스티드 장로가 전도의 첫발을 내디딤으로써 시작되었다.

그후 12월 6일에는 홍 무광 선교부장과 8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 선교부장이 송정시 지역을 주님의 복음을 펼칠 땅으로 헌납하였다. 그리고 12월 14일에 송정 전도소 첫번째 성찬식이 있었다. 이 모임에는 29명의 회원 및 선교사가 참석하였는데 박 중언 장로가 "시온을 준비함"이라는 주제로



첫번 성찬식에 참석한 성도들



최근(2월 첫주)에 참석하는 성도들

말씀하였으며 초청 연사로 농성 와드의 임 중하 감독이 송정 전도소의 훌륭한 개척과 발전을 격려하는 영감에 찬 말씀을 했다. 현재 송정 전도소에는 매주 15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하고 있는데 비록 적은 수이지만 하나 신앙으로 강하게 뭉쳐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송전 전도소에서 주님의 사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연고자에 대한 회원들의 연락이 있기를 바란다.

송전 전도소의 연락처와 선교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주소 : 501 전남 송정시 원동 원일 맨션 1-101호 (송정 우체국 사서함 118호)

전화 : (062) 92-9437

선교사 : 박 중언 장로, Steed 장로, Nickell 장로, Phillips 장로.

강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송년 모임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에서 스테이크 내의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형제들이 참석하여 박 내정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강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송년 모임을 가졌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김경자 자매는 “한 해 동안 신권을 가진 형제님들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들과 윗 어른들을 모시느라 수고하신 자매님들이 어려운 틈을 내어 손수 익혀 두었던 아직 발굴되지 않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오늘 선보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송년 모임에서 선보인 재능들은 2부로 나뉘어졌는데 제 1부에서는 사진, 초상화, 수예, 과자 테코레이션, 골동품, 공예품 등 실생활에 활용되는 작품이 전시되었다.

제 2부에서는 재능 발표 순서로 독창, 피아노 연주, 시낭송, 웅변, 무용, 기악 연주 등을 발표하여 참석한 회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말씀하는 김 경자 자매



합주하는 자매들

광주 스테이크 구모라에서 모로나이의 향연

지난 1월 3일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구모라에서 모로나이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음악 잔치가 베풀어졌다. 그것은 서울 동 스테이크의 모로나이 중창단과 광주 지역의 구모라 합창단 그리고 청소년 합창단의 합동 발표회로 이루어졌다.

이날 모로나이 중창단은 송 형택 형제의 반주로 자작곡인 “나 본향에 가리라”, “주님의 집”, “고향길” 등 여러 곡과 찬송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등 감미로운 노래로 광주 지역의 성도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이어 청소년 합창단이 찬송가 26장 “나오라 시온의 젊은이”, “땅 위의 기쁨”, “본향을 향하네”, “냉면” 등을 불렀을 때 입고 나온 한복과 더불어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으며, 구모라 합창단의 “천국 기도” 등 여러 곡은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날 발표에 참여한 중창단과 합창단원들은 비전문가들로서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의로 뭉쳐 연습한 결과 참석한 신권 역원과 여러 성도들 그리고 구도자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었다.

청소년 합창단은 방 극만 형제가 지휘를 맡았고 구모라 합창단은 이 남준 형제가 지휘를 맡았다.



청주 스테이크 대회



말씀하고 있는 김 동환 스테이크 부장

청주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1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 청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김 동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49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영적인 분위기로 치러졌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로 정하여 김 동환 스테이크 부장은 성도들이 87년 한해를 현명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해 주었다.

첫째, “필요 이상 잠자기를 그치라.” 둘째 “매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메모 카드에 적어 점검하면서 그날 일은 그날 처리한다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정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셋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힘쓰자” 그러기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세속적인 지식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활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생활이 될 것을 권고했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귀환 선교사인 강 병호 형제와 안 양순 자매가 물몬경에 대한 간증과 한국 교원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복대 와드 최 수영 감독은 야렛의 동생이 주님에게 셀렘산에서 갓 16개의 돌을 내밀며 이 돌을 만지시어 암흑중에 빛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이더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몬경은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주님께서 이 세대를 위해 준비한 경전임을 간증했다.

대구 스테이크 교회사 퀴즈 대회

대구 스테이크에서는 1월 24일 오후 3시부터 수성 와드에서 부산 신학 연구원 주최로, 와드/지부 대항 중등부 교회사 퀴즈 대회를 가졌다.

네 개 와드/지부에서 6명씩 출전하여 2명이 한 조가 되어 릴레이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과 불꽃튀는 열전으로 계속되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 배운 교회사 과정을 복습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출제 문제도 세미나리 교재에서 많이 인용되었다.

6명으로 구성된 중리 와드팀이 800점 만점에 490점을 기록하여 대회에서 최고 득점의 영예를 안았다. 100여명의 역원 및 청소년들이 방청석을 메웠으며 중리 와드의 익살스러운 플래카드와 응원가는 좌중을 웃음으로 꽃피웠다. 방청객을 위한 문제도 마련되어, 참여자 전원이 호응을 가다듬는 시간도 있었다. 교사와 반원이 일치하여 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대회 진행을 위해 부산 신학 연구원에서 민 혜기 원장과 이 순철 교수 그리고 장 미경 자매가 도움을 주었다.

참석한 회원들은 주님의 영을 지니고 삶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가르침의 도구인 경전을 연구해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느꼈다.

다음은 입상순위이다.

- 1 위 : 중리 와드
- 2 위 : 수성 와드
- 3 위 : 포항 지부
- 4 위 : 대명 와드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 72기 수료

다니며 만민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 72기 (1986년 11월 17일~21일)를 수료한 13명의 선교사들이 다음과 같이 지명받은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다.

전국 가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열망하여 합당한 절차를 거쳐 선교사로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국 선교사 훈련원에서 복음 선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배운 후 각기 임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괄호 안은 출신 와드/지부의 이름이다.

- 다음 -
- 구 본훈 장로 (도봉 와드) - 부산 선교부
 - 김 순분 자매 (연산 지부) - 대전 선교부
 - 강 원구 장로 (수정 와드) - 서울 선교부
 - 이 상훈 장로 (마포 와드) - 대전 선교부
 - 김 현수 장로 (청주 지부) - 대전 선교부
 - 한 미선 자매 (혜화 와드) - 부산 선교부

- 임 일환 장로 (중앙 와드) - 서울 선교부
- 박 찬원 장로 (경주 지부) - 서울 선교부
- 신 영태 장로 (강릉 지부) - 대전 선교부
- 조 기준 장로 (화양 와드) - 대전 선교부
- 최종순 자매 (진주 와드) - 서울 선교부
- 김 인희 장로 (부평 와드) - 서울 선교부
- 김 숙희 자매 (화곡 와드) - 서울 선교부